아인슈타인과 바리새인

(마22:41-46)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인슈타인과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인슈타인과 바리새인'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 살 때쯤 쌍둥이 중에서도 언니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언니가 타는 우주선의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하면, 빛의 속도의 87%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km가 되니까 이 우주선은 1초에 26만 천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여행을 떠난 언니를 이 동생은 지상에서 날마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10년 세월이 지났지만 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으면서 우주로 떠난 언니를 기다리는 것이 끝나버리고 언니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느덧 60이 되어 손자들까지 있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는데, 60이 된 어느 봄날 언니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딸과 같이 있었는데 돌아온 언니의 모습이 딸보다 더 젊은 거예요.
'언니, 왜 이렇게 젊어?' '그럼 젊지, 서른다섯밖에 안됐는데? 너는 왜 그렇게 늙어버렸니?'
'언니, 나 60이야, 언니도 60세지' '아니, 나 서른다섯이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느려져서 빛의 속도의 87%가 되게 되면 지구 위에서의 시간보다 2배 시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있던 동생은 50년이 지나서 60세가 되었는데, 261,0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언니는 25년밖에 시간이 안 지난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에서 밝혀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전까지 뉴턴의 기계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시간은 다 똑같이 불변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뉴턴 뿐 아니라 그 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요.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언니는 25년 동안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왔고, 같은 시간의 느낌인데 이 동생은 50년 동안 지구를 돌아다녔어요, 그 공간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겠지요.
언니가 다닌 공간의 거리는 천문학적인 거리예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 공간도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거지요.

이런 아인슈타인이 어떤 점에서 바리새인보다 나을까요?
오늘 본문에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질문을 바꿔 얘기하면, '천년 뒤에 그것도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이 왜 주라고 불렀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주라고 불렀는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이 질문을 주님께서 아인슈타인에게 하셨다면, 아인슈타인은 조금 연구해보다가
'아! 그것은 시간의 상대성이론을 적용시키면 어느 정도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의 시간과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던 때의 시간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지구 위에서만 마음이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의 시간개념으로는 도저히 천년 뒤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칭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상대성이론을 좀 더 피부에 닿게 피상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 높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때는, 제가 미동국민학교를 다닐 때 외국 손님들이 김포공항에 내려서 광화문으로 오려면 학교 앞으로 지나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수업을 다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가서 태극기와 미국기를 양손에 들고 환영하곤 했습니다.
그때 보면 경찰 싸이카, 싸이도카, 정부요원들이 그 대통령이 탄 차를 호위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참 신기했던 것은, 경찰 싸이카가 앞으로 뒤로, 예를 들어 앞에 두 대 뒤에 두 대가 간다고 하면 어떻게 바퀴 두 개 달린 싸이카가 흔들림 없이 똑같은 속도로 같이 움직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싸이카 4대가 가운데 대통령이 탄 차를 호위하면서 똑같이 움직여 갑니다, 하여간 그 전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싸이카를 탄 경찰이 B라는 싸이카를 탄 경찰을 바라볼 때는 서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움직인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가만 서있는 시민들을 볼 때, 오히려 시민들이 뒤로 움직이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보면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해 봅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것, 말로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이 느끼는 정서상으로는 돈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나 A 싸이카의 이름을 돈이라고 붙여보고, B 싸이카의 이름을 무병장수라고 붙여봅시다.
A와 B, 돈과 무병장수의 싸이카가 같이 갈 때는 돈이라는 경찰이 무병장수라는 경찰을 볼 때 자기 옆에 늘 붙어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리에 서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지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돈도 무병장수라는 싸이카도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아무리 목을 빼고 멀리멀리 바라봐야 5분을 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서대문에서 쭉 빠져가지고 광화문을 향해 돌아서면 더 이상 안 보이고 맙니다.
그러나 A와 B가 서로 볼 때는 돈이 끝까지 같이 갑니다.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괴롭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사귄 친구가 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암4기여서 의사들도 손을 못 대고 항암치료도 의미가 없어서 그것도 접었다는 겁니다.
어떡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병장수라고 하는 싸이카를 A라고 하는 싸이카를 탄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귀중한 거라서 위암이 큰일인 거예요, 그러나 무병장수라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느 위치에 서서,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관측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핵심문제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는 바로 이런 의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전매특허 낸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고 무지하냐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해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불변하다는 구태의연한 생각 속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시간상 천년 뒤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칭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방언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될 때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마음이 관측지점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마음이 가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관측지점의 변화를 통하여 지금 다윗의 몸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천년 뒤에 이 지구 위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보니까, 후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상으로는 천년 뒤에 태어날 자기의 후손인데, 관측지점을 바꿔서 보니까 천년 뒤에 태어날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님이더라 이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마음이 떠나야 되요.
시간과 공간을 마음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땅 위의 어느 것에 마음이 가치를 부여하면서 붙들려 있고 묶여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주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죽고, 마음이 시간과 공간 바깥으로 나가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관측지점을 옮겨

서 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격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교인이 암으로 마흔 두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노래처럼 한 이야기가 '내 육체의 암이 내 마음의 암을 고치는 약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처럼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마음이 묶여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암이,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고, 심판이 그런 심판이 없고, 먹구름도 그런 먹구름이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이 마음이 벗어나자마자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천국으로 마음이 올라가자마자 육체의 암이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것이 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한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묶여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간에 묶여있었기 때문이고,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일, 대상, 그것에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의미를 두었기 때문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망하면 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돈 못 벌면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못 믿어요.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모셔 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 위로 마음이 올라가서 있는 상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답게 믿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로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건 물리학적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빛을 올라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올라타는 거죠.

이처럼 빛의 속도로 올라탈 때, 시간이 없어져버립니다.
영원한 세계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많이 번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절대가치의 처소가 이 땅에 있어요, 아무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 이유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삶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잘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떠나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라고 칭할 수 있는 거예요.
천년 뒤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처지는 시간을 떠나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긴데, 이렇게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의 처지, 그렇게 많은 신학적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 안에 마음이 묶여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모든 관측의 지점이 이 땅에 묶여 머물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이겁니다.

상대성이론,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합니다.
관측지점이 중요합니다.
관측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의 의미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돈이 없습니까?
관측지점을 하늘로 옮겼을 때, 돈이 얼마나 무서운 독약인가를 환히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지를 알 수 있고, 왜 세상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관측지점을 하늘로 옮기면, 빛 되시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올라타서 이 시공간을 떠나고 나면, 왜 내 몸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한다, 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엘리트의 코스만을 걷는다는 게 그 아이의 영혼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관측지점을 바꿔서 보면 환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빛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아인슈타인처럼 상대성이론가가 아니라 상대성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제2, 제3의 아인슈타인이 되게 해주시고 단순한 상대성이론가가 아니라 상대성의 세계 안에서 살면서, 이제 우리 마음의 관측지점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빛 되시는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하늘로 옮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관측지점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세계인 이 지구가 아니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